



폭력배 12개組 나눠 집단투숙

曹溪寺 난투극 수사 안봐

경참에 미아 4명55의3이란 기
 나달28일 밤11시경 머리를
 짧게 깎은 건장한 체구의
 피청년 30~40명이 서울중
 로구청전동 서울호텔 객실
 12개에 나누어 투숙했다는
 집단투숙했던 사실이 밝혀
 진에 따라 폭력배들이 조
 이들 청년들이 농성중
 가 서울호텔의 피청년들과

「습격」 10분前 일사분란 행동 숙박부 추적 배후구명 열쇠

직전으로 동원된 사실이
 드러났다.
 호텔숙박 기록부
 曹溪寺 난투극과 관련 폭
 력배들이 조직적으로 동원
 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
 수사의 귀중한 자료가 될
 서울호텔 3월29일자 숙박
 기록부.
 (서울聯)
 습격시간 10분前인 새벽 6
 시경 객실을 나갔다가 피
 습격후인 이날 오전 돌아와
 오후1시경 나가는데 일사
 불란하게 동원됐다.
 또 이날 오전10시경 다
 른 피청년들이 물결의 방
 20개를 더 요구했다가 취
 소한 사실도 확인됐다.
 경찰은 이들의 숙박부에
 「술집」 30세 서울도봉구
 같은 시간대에 움직인뒤
 오후2시경 퇴실한 것으로
 확인됐다.
 이로써 1백명정도로 추
 산되고 피청년들중 40~50
 명의 행방이 일단 확인됐다.
 전망 경찰이 현재까
 지 드러난 사실을
 과 입수한 정보들을 제대
 로 활용할 경우 불교계의
 뿌리깊은 치부인 피청년들

의 활동과 정체가 밝혀질
 가 능성이 높다.
 더구나 경찰도 경찰의
 수사에서 조직폭력배의 배
 후세력이 어느정도 드러날
 경우 본격적으로 수사에
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
 나에 있다. (文哲)

宗團비리 적발·징벌이 주임무 소속승려 總務院長 신임 각별

曹溪宗 규정부

조계사폭력사태와 관
 련, 검찰과 경찰로부터
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
 총무원 규정부 부장普
 스(스님)는 총무원장 직
 속 6개부중에서도 가장
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
 는 보좌조직으로 알려지
 고 있다.
 규정부는 「호트린집
 (糾)을 바로잡는다(正)」
 는 말 그대로 총단소속
 승려들의 품행과 교양,
 잘못이나 비반칙을 적발
 해 바로잡는 것을 주임
 무로 하고 있다.
 당초 총부원을 견제하
 기 위해 독립된 기구의
 관할원으로 출발했으나
 70년대초반부터 총무원
 직속의 규정부로 바뀌며
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
 왔다.
 승려 11명과 일반직원
 4명이 상근하는 규정부
 에는 정보, 조사, 규정 3
 개국이 있으며 그 밑에
 로 과 계단위의 부서를
 두고 있다.
 중단전체의 정보를 취
 급하고 승려들의 비리를
 캐내는 핵심적인 역할을
 중법(宗法)상에도 나와
 있지 않은 정보국이 담
 당하고 있다.
 규정부가 이처럼 막강
 한 기구를 가지고 있기
 때문에 부장을 비롯, 소

속승려 및 일반직원 대부
 분이 총부원장의 두터운
 신임을 받고 있다.
 서울호텔에 투숙한 조
 직폭력배들을 동원한 것
 으로 알려진 규정부 소속
 무승스님은 88년6월 발
 생한 서울강남구 봉은사
 폭력사태이후 승려들을
 발원받아 규정부에서 일
 해오면서 普日스님의 상
 좌(上座)가 된 총부원장
 의 출근.
 경찰의 폭력현장 채증
 사진에서 행동대장으로
 지목되고 있는 高승복
 조사계장도 태권도장 사
 법출신으로 총부원장의
 비서직으로 활동해왔던
 인물이라고 범승가종단
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
 들은 말하고 있다.
 (宋相根)